

육우농가의 소리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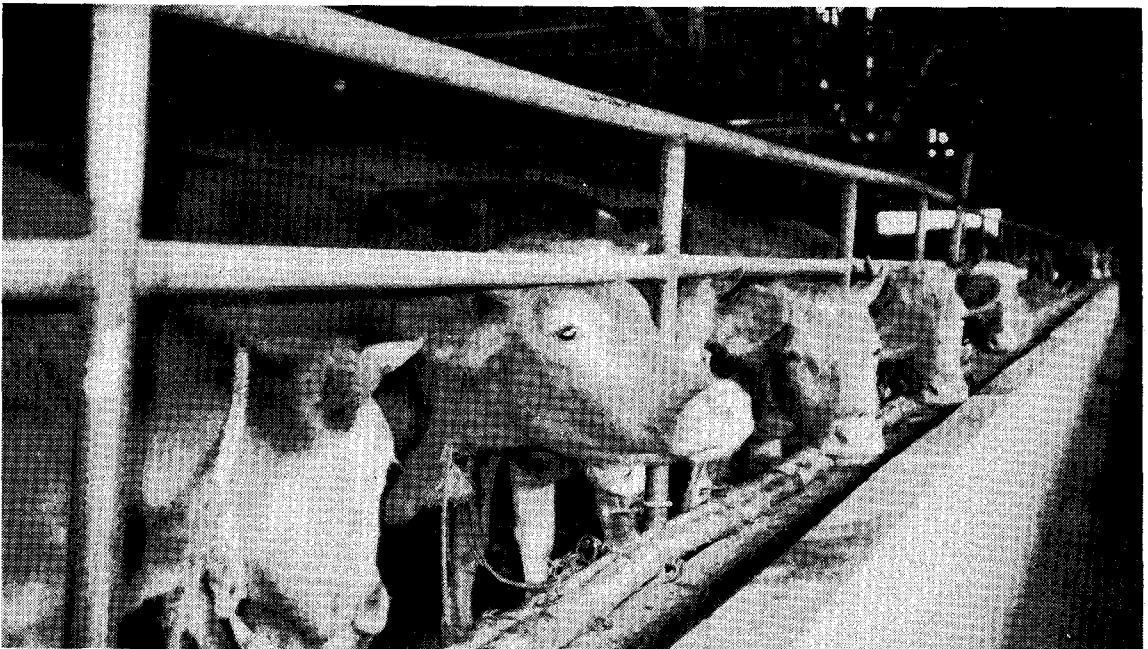
국회
「수입개방저지
특별위원회」
상설 필연적

김 재 창

충남 아산군 둔포면 신양2리

소를 기르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치고 수입 개방이라는 용어에 몹서리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쇠고기, 생축 등 수입에 기인한 소파동의 피해의식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입개방시 드러날 농촌의 모습이 흰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소파동으로 더러는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농어민 후계자로서 굳은 용기와 희망으로 농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소를 키우다 파산되자 좌절되고만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였고 지금도 그때의 실의에 젖은 농가들이 갖은 노력으로 가산을 회복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않아 세 상사를 원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예는 아주 평범한 사례이고 소와 함께 꿈을 키우려다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파탄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해 자살이라는 수단으로 세상을 등진 사례도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나라의 터전을 이루면서부터



소와함께 애환을 같이 해온 역사에 있어 이러한 비극은 유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성도 농촌 생활이 어렵다는 정도의 일과성 문제로 다루질 뿐 근원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일반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비극의 그림자가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이라는 선언까지 나오고 말았다.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기반은 없어지는 것인지 정부의 '수입개방' 용어에 대해 앞이 감감할 따름이다.

우리 농촌의 여건과 우리 민족의 소인 한우에 대해 제대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된다면 절대로 수입개방을 용인하거나 두려워할 사안도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농촌의 대부분 농가는 한우를 농사용 역우로 사육하였고 또 환금성 높은 재산으로서 급박한 금전지출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육하여 왔다. 현재도 전체 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한우가 육류 공급원이라는 소박한 차원. 이전에 농가의 가장 친숙한 애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농촌실정에 비추어 부업위주의 한우 사육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크게 장려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소위 상업농 시대에 접어들면서 축산업도 점차 전업·기업화 추세에 돌입하여 양계업, 양돈업이 전·기업화 단계에 이르렀고 아직도 한우사육만은 농가부업으로서 존속되고 있다. 농가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2두이고 4두이하 사육농가는 전체 한우 사육농가의 92%에 해당된다.

한우는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합한 우리 고유의 소 품종으로서 국가적인 귀중한 재원이며 주체성을 가진 가축이다.

축산선진국일수록 그나라 고유의 소를 보호하고 개량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나라는 흥하고 있는 산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여

도 우리 한우를 들여다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시켰고 일본 풍토에 가장 적합한 소를 만들어 일본인의 의식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다. 제아무리 미국, 호주 등에서 쇠고기 수입 압력이 몰아쳐도 오히려 화우 쇠고기값이 비싸면서 우수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음은 본받아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기후 풍토에 맞고 일본인의 기호에 알맞는 쇠고기 곧 화우의 정착이야 말로 일본이 수입개방에도 이겨낼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 할 것이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리 풍토에 전통적으로 알맞은 한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한우의 수난시대를 맞고, 수입 여파로 그 우수성을 우리 것으로 만들수 없는 사실은 너무도 안타깝고, 우리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정말 막막한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급 불균형 파동으로 소를 원망하며 농촌을 등질 수 밖에 없는 현실만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우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심사로 보호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물론 사육은 농가들이 담당하므로 농가들의 우수한 쇠고기 생산에 주력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농가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국민성에 일치되는 한우쇠고기를 생산 공급하는 터전이 마련되는 한 장기적인 수입개방 문제도 반드시 그리 두려워 할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하루 앞을 마음놓고 소를 키울수 없는 풍토에서 한우사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기적 기반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GATT 국제수지위원회(BOP) 졸업으로 '97년까지는 수입개방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큰 잘못이고 국가적 책임이라 본다. BOP졸업의 예는 일본에서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60년대에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졸업하였다.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사유를 내세워 굳게



구호로만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농민을 외면하고 농촌현실을 무시하는 국회라면 차제에 우리 농민이 단합하여 옳은 판단으로 심판해야만 한다. 하루빨리 국회는 심각한 육우산업 문제와 농촌문제를 직시하여 대책방안 마련에 솔선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내에 「농촌발전 및 수입개방 저지」특별위원회의 상설이 필연적이라 보며 우리 농민의 아픔을 행동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문을 지켜왔고 일본 농민이 기반조성을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여 왔다. 이제 일본이 자신있게 화우로서 대응할 시점에서 전반적인 소비풍토를 진작 시켜놓고 92년도 개방을 용인하겠다는 주장이다.

마치 97년도까지 우리가 농축산물을 수입개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보며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업형태의 가족노동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특수성을 내세워 얼마든지 대응해서 버틸수 있어야 한다.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한우의 자질향상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개방시에도 반드시 이길수 있는 기반조성 시점까지 정부는 절대로 수입개방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 책임이며 우리 농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본다. 물론 수입 개방을 용인한 우리 농민도 없다. 뭉쳐서 힘을 만들고 대응할 준비나 각오가 없는 농민도 없을 줄 안다.

그리고 대미통상 압력 때문에 개방압력이 거세어

지는 현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 특히 미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여 한우 기반조성 기금으로 조성시켜야 한다. 고통받는 농민 따로 있는 수출로 이익보다는 기업 따로 존재하는 병리현상은 조속히 시정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수입 확대를 우려로만 그칠게 아니라 당장부터라도 「수입부과금」제도를 실시하여 국제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징수하여 한우기반 조성 등 농축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전액 투자해야 한다. 이미 EC국가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일은 국회가 맡아야 한다. 구호로만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농민을 외면하고 농촌현실을 무시하는 국회라면 차제에 우리 농민이 단합하여 옳은 판단으로 심판해야만 한다. 하루빨리 국회는 심각한 육우산업 문제와 농촌문제를 직시하여 대책방안 마련에 솔선해야 한다. 농민이 더이상 거리로 나와 울부짖기 이전에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내에 「농촌발전 및 수입개방저지」 특별위원회의 상설이 필연적이라 보며 우리 농민의 아픔을 행동으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마저 불신하는 풍토에서는 우리 소사육 농민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 육우농가들도 각성해야 한다. 국내에서 쇠고기 수입저지 시위가 한창인데도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와 세미나를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개최하고 있었다. 미국의 거센 압력은 바로 미국 육우농가들의 단합과 힘 때문이다. 우리 육우농가들도 우리의 중앙 구심체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단합해야 한다.

단합하는데서 힘은 생겨나고 우리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다.